

어음부도율은 2014년과 동일한 0.16%를 기록했으며 기업 대출 연체율은 연중 신규연체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하락한 0.90% 수준을 나타냈다.

■ 가계신용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5년 말 현재 1천207조원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12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연간 증가폭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증가속도는 2014년의 6.5%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해 2015년에는 11.2%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8월 LTV·DTI 대출규제 합리화 등에 따른 주택 시장 정상화 기초 속에서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2006년 이후 최대치를 보인 주택거래량 증가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에는 분양물량 확대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016년 2월)을 앞둔 대출 선수요 반영 등이 복합적으로 집중돼 하반기 가계부채 증가폭(7조5천억원)이 상반기의 46조2천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총 규모면에서는 은행권, 비은행권 모두 증가했으나 세부 구성 중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규제 합리화로 비은행권 대출의 상대적 비중이 약화되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2011년 6월 29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2015년 7월 22일) 등 가계부채 대책 추진 등으로 2010년 말 0.5%에 그쳤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2014년 말 23.6%, 2015년 말에는 35.7%로 증가했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2010년 말 6.4%에서 2014년 말 26.5%, 2015년 말에는 38.9%로 확대되는 등 가계대출 구조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4년 말 0.49% 수준에서 2015년 말 0.33%까지 하락했고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도 2014년 말 0.41%에서 2015년 말 0.27%까지 하락하는 등 안정되는 모습이다.

가계신용	(기말,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1/4	2/4	3/4	4/4
가계신용	1,021.4	1,085.3	1,098.3	1,131.5	1,165.9	1,207.0
가계대출	962.9	1,025.1	1,039.3	1,072.0	1,102.4	1,141.8
판매신용	58.5	60.2	59.0	59.5	63.4	65.1

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수지

■ 개요

2015년 경상수지는 1천59억6천만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됐으나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전년 대비 215억9천만 달러 증가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7%(잠정치)로 1998년(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 등 내수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유가 급락으로 수입단가(전년 대비 -21.2%)가 수출단가(전년 대비 -11.7%)보다 크게 하락해 상품수입금액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됐다.

상품수지는 1천203억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4억8천만 달러 증가했다. 상품수출은 5천489억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5% 감소한 반면 상품수입은 4천285억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2% 감소했다.

통관기준 수출입차(무역수지)와 국제수지표 상의 상품수지는 개념상 일견 유사해 보이나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2015년의 경우에도 통관기준 수출입차는 902억6천만 달러인 반면 국제수지표 상의 상품수지는 1천203억7천만 달러로 301억천만 달러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통관 수출입 통계가 수출입 신고서 수리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반면 국제수지표 상의 상품수출입 통계는 상품의 소유권 변동일을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박의 경우 통관(인도) 시기와 소유권 이전(금액영수서 시점) 시기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선박수출 여부가 양자 간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2010년 1월 국제수지 기준이 IMF BPM6로 개편(국내통계는 2014년 3월에 반영)돼 상품수출입 산출 시 소유권변동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적용하면서,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통관수출입액을 제외하고 소유권 변동이 있는 무통관 수출입액을 포함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와 해외 현지생산이 확대된 2007년 이후 양자 간 차이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또한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포함 여부도 영향을 준다. 통관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FOB 기준)하는 반면, 상품수입은 운임과 보험료를 차감(FOB 기준)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특이요인이 없는 한 상품수지는 구조적으로 통관기준 수출입차보다 흑자규모가 크게 나타난다.

■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

2015년 수출은 5천267억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0% 감소했다. 중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수출 물량은 증가세를 유지(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나 유가급락으로 석유·석유화학제품 등 유가영향품목을 중심으로 수출단가가 하락(전년 대비 -11.7%)하면서 수출이 감소 전환됐다.

분기별 수출증가율은 1분기 -3.0%, 2분기 -7.3%, 3분기 -9.5%, 4분기 -12.0%로, 수출 감소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10.2%), 선박(0.6%), 반도체(0.4%)는 증가했으나, 석유제품(-37.0%), 석유화학(-21.6%), 철강(-15.0%), 평판DP(-8.2%), 자동차(-6.4%) 등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는 공급과잉에 따른 메모리 단가 급락으로 4분기에 감소로 전환(전년동기대비 -11.6%)했으나 수출규모 600

억 달러는 유지했다.

석유·석유화학제품은 국내 생산설비 증설 등으로 공급량이 증가하며 물량은 증가했으나 유가 하락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수출금액이 감소했다. 철강·평판DP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단가가 지속 하락하면서 수출금액도 감소했다.

13대 주요품목 수출통계

(단위: 억 달러, %)

	2012	2013	2014	2015(잠정)
13대품목(증가율)	4,366.5 (-4.0)	4,426.9 (1.9)	4,614.1 (2.3)	4,180.2 (-9.4)
(비중)	<79.3>	<79.1>	<80.6>	<79.3>
선박류	357.5 (-29.8)	371.7 (-6.5)	398.9 (7.3)	401.2 (0.6)
무선통신기기	227.5 (-16.7)	275.8 (-21.2)	295.7 (7.2)	325.9 (10.2)
자동차	472.0 (4.2)	486.3 (3.0)	489.2 (0.6)	458.3 (-6.4)
일반기계	479.1 (4.6)	464.1 (-3.1)	484.0 (4.3)	467.6 (-3.4)
석유화학	458.8 (0.6)	483.8 (5.4)	482.1 (-0.3)	378.0(-21.6)
자동차부품	246.1 (-5.2)	260.8 (6.0)	266.4 (2.1)	255.5 (-4.1)
컴퓨터	84.6 (-7.6)	77.6 (-8.3)	77.1 (-0.6)	77.5 (0.4)
가전	126.4 (-5.2)	148.8 (17.8)	148.4 (-0.3)	124.8(-15.9)
섬유류	155.9 (-2.1)	159.9 (2.3)	159.4 (-0.1)	143.1(-10.2)
철강	369.7 (-3.9)	324.9(-12.1)	355.4 (9.4)	302.0(-15.0)
반도체	504.3 (-0.6)	571.4 (13.3)	626.5 (-9.6)	629.2 (0.4)
석유제품	560.9 (8.7)	527.9 (-5.9)	507.8 (-3.8)	320.6(-37.0)
평판디스플레이	367.9 (10.6)	358.2 (-2.6)	323.1 (-9.8)	296.6 (-8.2)

지역별로는 제3위 수출국으로 부상한 베트남 수출은 증가(24.2%)했으나 미국(-0.6%), 중국(-5.6%), EU(-6.9%), ASEAN(-11.5%), 중동(-12.6%), 중남미(-14.5%), 일본(-20.5)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 연중 수출흐름은 EU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대EU 수출 감소세가 완화되고 4분기에는 증가 전환(7.9%)된 반면, 대미 수출은 1분기 선전(13.3%)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폭이 확대됐다.

대중 수출의 경우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성장전략 변화(수출·투자 → 내수·소비 중심)가 가속되면서 감소세가 점차 확대됐다. 대일 수출의 경우 2012년 4분기 이후 이어진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감소세가 이어졌다.

수입은 4천3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9% 감소했다. 자본재(1.3%) 및 소비재(2.1%) 수입은 증가했으나 유가 급락 등으로 원자재(-29.6%) 수입은 크게 감소했다.

소비재의 경우 자동차, 육류 등은 증가했으나 쌀, 밀 등 양곡 수입은 감소했다. 자본재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장비, 무선통신기기, 항공기 및 부품 등의 수입은 증가했으나 원동기 및 펌프,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원자재의 경우 유가급락의 영향으로 원유, 가스, 석유제품,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

수출입차를 보여주는 무역수지는 902억6천만 달러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431억천만 달러 증가했다. 대중, 대ASEAN 등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대중동·대일 무역 역조는 축소됐다.

통관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14				2015				
	연간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수출	5,726.6	1,456.7	1,417.6	1,477.0	5,267.6	1,334.0	1,351.0	1,282.4	1,300.2
(증가율 %)	2.3	3.2	3.6	0.9	-8.0	-3.0	-7.3	-9.5	-12.0
수입	5,255.1	1,309.6	1,328.4	1,293.5	4,365.0	1,117.7	1,105.0	1,079.6	1,062.7
(증가율 %)	1.9	3.3	5.4	-2.8	-16.9	-15.6	-15.6	-18.7	-17.8
수지	471.5	147.2	89.2	183.5	902.6	216.3	246.1	202.8	237.4

■ 2015년 수출입 평가 및 2016년 전망

수출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증가폭이 둔화됐고 수출 단가는 유가하락 영향 등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유가영향 품목인 석유·석유화학제품의 수출 감소가 총 수출 감소분의 63.6%를 차지했다.

신항국 경기부진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유가 급락 등 일시적·경기적 요인과 함께 우리 주력품목의 경쟁력 약화, 해외 현지생산 지속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결합되면서 수출입 모두 감소해 2011년 이후 4년 만에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실패했다.

다만 글로벌 교역 부진(2015년 세계수출은 11.0%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서 수출규모 순위는 6위로 한 계단 상승(2014년 7위)했고 10대 수출국 가운데 수출 증가율 4위를 기록(홍콩 제외 시 3위)하는 등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자동차·철강 등 주력품목의 부진이 심화됐으나 화장품·의약품·SSD 등 신규 유망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해 수출품목이 다변화됐다. 이와 함께 휴대폰 부품 등 대베트남 수출 약진으로 그간 고착화되었던 5대 수출국 순위가 바뀌는 등 수출시장도 다변화 조짐을 보였다.

2016년에는 세계경제 회복, 유가 하락효과 완화, 2015년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이 증가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추격 등 주력품목 경쟁력 약화, 원화의 실효환율 절상 가능성 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입은 내수활성화 정책효과 등으로 내수용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이 반등하면서 수출용 원·부자재 수요도 확대돼 하반기 이후 증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비스수지

서비스수지 적자는 157억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0억3천만 달러 확대됐다. 가공서비스수지·지재권사용료수지는 전년 대비 적자폭이 감소했으나, 여행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운송수지·건설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전년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행수지는 메르스 여파로 중국을 중심으로 방한 외래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적자폭이 43억1천만 달러 확대된 96억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가공서비스수지는 54억9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적자폭이 1억5천만 달러 축소됐고 지재권사용료수지

재정

는 의약품 로열티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17억5천만 달러 축소된 36억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운송수지는 30억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물동량 감소, 컨테이너 등 화물운임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흑자폭이 31억7천만 달러 감소했다. 또한 건설서비스수지는 2012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 감소 영향 등으로 건설서비스 수입이 감소해 전년 대비 흑자폭이 48억 달러 감소한 104억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본원소득수지는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투자소득수지 흑자 규모(2015년 59억5천만 달러, 전년 대비 13억5천만 달러 증가)가 개선되면서 전년보다 17억5천만 달러 증가한 5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전소득수지는 전년 대비 3억7천만 달러 적자폭이 축소되면서 46억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전소득 수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89억2천만 달러인 반면 이전소득 지급은 3억2천만 달러 축소됐다.

	2014		2015				
	연간	4/4	1/4	2/4	3/4	4/4	연간
경상수지	843.7	264.5	224.4	279.2	291.1	264.9	1059.6
상품수지	888.9	251.4	242.2	336.8	306.4	318.4	1203.7
서비스수지	-36.8	-3.8	-43.9	-30.8	-35.5	-46.7	-157.1
본원소득수지	41.5	29.3	38.3	-15.6	27.3	9.0	59.0
이전소득수지	-49.8	-12.4	-12.2	-11.1	-7.0	-15.8	-46.1
자본·금융계정	893.2	283.3	237.8	286.5	295.9	275.5	1096.3
직접투자수지	187.7	54.6	43.9	74.7	49.2	58.2	226.0
증권투자수지	306.1	94.1	78.4	69.9	151.0	196.8	496.1
파생상품수지	-38.3	8.1	-0.4	-4.6	40.4	-10.1	25.3
기타투자수지	259.0	187.9	45.1	73.7	98.4	11.1	228.3
준비자산증감	178.9	-61.4	71.1	73.0	-42.9	19.3	120.5

■ 자본·금융계정

2015년 자본·금융계정은 1천96억3천만 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해 전년보다 순자산 증가 규모가 203억1천만 달러 확대됐다.

기타투자(228억3천만 달러)는 순자산 증가규모가 축소된 반면 직접투자(226억 달러)와 증권투자(496억1천만 달러)는 순자산 증가규모가 각각 38억3천만 달러, 190억 달러 확대됐다.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전년도 순자산 감소(-38억3천만 달러)에서 25억3천만 달러 순자산 증가로 전환됐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로 크게 증가한 국내 유입 자금이 해외투자, 해외차입금 상환, 해외 대출 등 자본·금융 계정을 통해 활용된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은 3천679억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3억7천만 달러 증가했다.

■ 재정운용 여건

2015년은 1분기 0.8%를 기록하는 등 2014년부터 추진한 확장적 거시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듯했으나 장기간의 가뭄 및 메르스의 여파 등으로 소비 및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2분기 0.3%를 기록하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꺾였다.

주요국 경기둔화 및 저유가에 따라 수출마저 부진해 2015년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우려되고 저성장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해 2014년과 같은 세입부족 우려가 확대되는 등 총수입마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부족이 현실화될 경우 자금부족으로 인해 당해연도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경제여건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당초 3.8%로 전망된 2015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1%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등을 포함해 15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 세입 규모

2015년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총수입은 2014년보다 3.5% 증가한 382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중 국세는 221조1천억원, 세외수입은 27조6천억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5월 기준 국세수입액이 93조7천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이 42.4%에 지나지 않아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기 전 3개년(2010~13년) 평균 진도율인 47%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경기위축 우려로 인해 연말 세수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입경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확정됐고 2015년 국세 세입예산은 5조4천억원이 삭감된 215조7천억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 2월 세입·세출마감 자료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 대비 3조2천억원이 부족하고 추경예산 대비 2조2천억원 초과한 217조9천억원으로 기록됐다.

이는 경기회복세의 지연, 기업 실적 둔화 등으로 세수가 연초 예상보다 감소했으나 추경 이후 빠른 경제회복으로 세수가 회복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지출 규모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총지출 규모는 375조4천억원으로 2014년 예산 355조8천억원보다 5.5%가 증가했다.

이는 2013~17년 중기재정계획보다 7조원 확대되고 2014년 예산보다 약 20조원 확대된 규모로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기